



우리 공단은 마음만 받으며, 청렴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

풍요로운 황금 들판이 마음까지 넉넉하게 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이야기와 푸근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지난 여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로 적기 철도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부패행위와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사적으로 반부패·청렴실천 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공단은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추석명절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우리 공단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www.kr.or.kr) 및 핫라인(042-607-4332~7)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익명 보장은 물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다시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며, 공직자의 기본덕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공단의 ‘건전하고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온가족이 함께 따뜻한 웃음과 담소를 나누는 정겨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7.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이 현 정